

환경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사유

구승희 지음 《에코필로소피》

이진우

계명대 교수·철학

철학은 위기의 학문이다. 돌이켜보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던 모든 철학의 인식은 위기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예컨대 고대철학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고 외치는 퀘변론이 결국 상대주의를 보편화시키으로써 정치적 질서의 파괴를 가져온다고 진단하면서, 인간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신만이 만물의 척도”라는 전제 위에 진리에 대한 이성적 대화를 제안한다. 기술문명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근대 역사 위기의식에서 탄생하였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초월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붕괴는 삶의 규범적 토대를 침식시켰으며 결국 인간 이성의 발견을 가져왔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믿는” 근대인은 과학과 기술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지구는 이제 인간에 의해 완전히 식민지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현대인이 과학과 기술 덕택으로 현재 ‘만물의 척도’로 군림하고 있다면, 인간은 이성을 실현한다고 하였지만 결국 권력의 퀘변론을 보편화한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전환기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위기는 과연 어떤 것인가? 보편적 도덕의 붕괴, 환경의 오염, 생태계의 위기, 인간실존의 위험이 이미 새로운 세기의 기호로 떠오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과연 이성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유는 이성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정초될 수 있는가?

구승희의 《에코필로소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눈에 띄는 책이다. 저자는 사유의 혁명적 전환 없이는 현재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위기현상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기술문명의 부정적 부대현상을 인간이성의 점진적 계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영미계통의 환경철학이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간단히 말하면, 생태계의 위기는 기술문명의 주변문제가 아니라 인간이성의 태생적

21세기의 생태계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유를 요구한다. 저자는

세기 전환기의 새로운 사유로

‘이성의 타자’, 즉 이성과는 다른

무엇이 존재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가 생태 위기 극복의 사회 철학적

대안으로 내세운 ‘에코아나키즘’과

심층생태학은 에코필로소피를

이론적으로 정초하지 못하고 있다.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본질적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념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성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진행되어야 한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하기 위한 이성비판이 궁극적으로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를 초래하였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새로운 사유의 단초를 찾아야 하는가? 저자는 세기 전환기의 새로운 사유는 이성의 타자, 즉 이성과는 다른 무엇이 존재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성의 타자는 이성의 관점에서 보면 물론 비합리적인 것이고,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면 비실재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성의 타자는—내용적으로 보면—자연이고 인간의 신체이고 환상이고 욕망이고 감정이나, 폐일언하면 이성의 타자는 이성에 의해 소유되고 지배될 수 없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렇게 새로운 생태학적 사유를 이성에 의해 배제된 것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자연을 순전히 지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전통적 인간 이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생태철학은 이성철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때에만 가능하고, 또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성 말고 다른 무엇으로 인간과 인간을 구성하는 자연을 설명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명제는 이 책을 관류하는 핵심 줄기를 이루고 있다.

이 책은 전체 2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으로 저자는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



는 사회철학적 대안으로 ‘에코아나키즘’을 내세우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마르크스, 니체, 요나스, 복친과 같은 사상가들에서 ‘심층생태학’의 뿌리를 찾고 있다. 심층생태학은 인간에게 “생명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이라는 사실 이외의 어떠한 존재론적 특권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급진적 생태주의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심층생태학은 지구 자체를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파악하는 까닭에 주체/객체, 인간/자연, 정신/물질의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자연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자체의 언어로 자연의 윤리를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생태철학의 과제라고

한다면, 저자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자연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제시해야 한다.

더군다나 저자가 즐겨 인용하는 노자가 말하듯이 ‘자연은 말이 없다’면, 심층생태학은 결국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심층생태학의 인식론적 전제가 무조건적인 것이라면, 에코아나키즘의 사회철학적 대안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자연을 더이상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자연의 한계내에서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술권력을 제어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을까?

저자는 비록 줄과 줄 사이에 예리한 직관과 독창적 대안을 숨겨놓은 듯하지만 전체적으로 에코필로소피와 생태중심적 공동체주의를 이론적으로 정초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태중심주의가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는 까닭은 이성이 문제 있다고 해서 이성의 포기가 곧바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자연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규정되어야 하듯이 이성의 타자 역시 이성적으로 사유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이 퀘변으로 들리면 들릴수록 이성에 대한 철저한 사유가 요청되는 것은 아닐까? ❖

세길 / A5신 / 304면 / 12,000원

본지 ‘서평·신간소개’ 안내의 말

《출판저널》은 국내에서 출간되는 온갖 종류의 책 가운데 출판의 의미가 있거나 소개 가치가 높은 책들을 선정, 서평·저자 인터뷰·대담·신간 읽기·신간 리뷰·출판화제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출판저널》을 통해 좋은 책을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출판사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신간도서 출간 즉시 간단한 ‘보도자료’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보내주시면 어떤 형태로든 신속하고 성실하게 다루어 드립니다.
2. 현재 기획·제작중이거나 번역중인 책은 출간 전이라도 비중에 따라 적절한 지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출판저널》 편집부